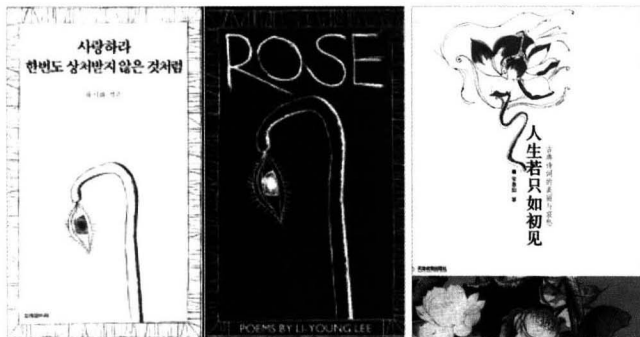


2007년 1월의 키워드

# ‘창의적인 생각’ 과 ‘새로운 옷’ 으로 무장한 다부진 결과물 기대



연초 들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술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이 사형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웠을 뿐 아니라,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성토 역시 뒤따랐다. 한편 홍콩은 직장, 학교, 음식점, 공원, 해변 등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포, 사실상 홍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세계적인 키워드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들썩였다. 내 정부부터 취임까지 기간의 다큐멘터리가 TV 전파를 타는다면, 곳곳에서 취임을 축하하는 음악회 등 행사가 줄을 이었다. 출판계도 '반기문 특수'를 노린 책들이 출간되었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명진출판)와 《조용한 열정 반기문》(기파랑)이 그 주인공. 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쓴 책이 아닌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 남한에서 세계 평화의 전령사 역할을 맡게 된 유엔의 수장이 탄생한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듯하다.

그러나 출판계의 관심사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생수업》 《야하다 알라송》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제목만 언급해도 짙이는 구석이 있다. 사실 2006년 연말과 2007년 연초 출판계는, 한 라디오 진행자의 표현처럼 “어수선했다.” 지난해 가을 터진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파문이 아직도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표절 의혹은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색다른 것은 이번 표절 파문에는 《인생수업》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처럼 내용이 아닌 표지 표절이 함께 불거진 것이다. 한 출판평론가는 “텍스트의 표절만을 문제 삼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표지나 내지 일러스트 역시 창작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칫 더 많은 표절 시비가 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텍스트의 표절 역시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해 한 유명 출판사에 발행한 역사서가 표절로 전량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세밑세초에는 유명시인인 마광수 교수가 제자의 시를 표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 교수는 즉각 사죄하고 《야하다 알라송》을 전량 회수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세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견책 혹은 감봉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장애우 시인의 시를 표절한 대학교수도 있어, ‘표절’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 수위를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신학기가 되면 해마다 불거져 나왔던 대학 교재 등의 표절에 한국방송통신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지난 1월 2일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작권보호특별위원회’를 출범, 학교에서 출간하는 대학교재의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교수 60명이 펴낸 책 149권이 표절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절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20대 초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해석으로, 중국 고전의 재해석 붐을 주도했던 여성 작가 안이루의 작품들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안이루의 작품 《처음 대하는 듯한 인생》(人生若只如初见)이 국내 출간을 기다리고 있고, 안이루가 “한국판이 나올 때 서문을 통해 의혹을 지적한 이에게 감사를 표할 생각”이라고 말해 국내 출판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각은 그다지 새롭지 않으며, 때론 대동소이할 것이다. 결국 출판의 미덕은 그 해묵은 이야기들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어떤 ‘새로운 옷’을 입힐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007년에는 해묵은 생각과 옷을 벗어버리고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옷으로 무장한 출판계의 다부진 결과물들을 기대해 본다. ☞

취재·장동석 기자